



방산 엔진 첫 기술이전 시장 개척...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STX엔진은 3월 6일 PENSKE Australia와 호주 미래형 궤도 보병장갑차(레드백) 디젤엔진 공급을 위한 84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 및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STX엔진 이상수 대표이사와 PENSKE 주요 임원이 참석하여 양사 협력을 공식화했다. 계약을 통해 STX엔진은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용 디젤엔진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며, 호주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을 포함한 기술이전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 방산 기술도입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PENSKE Australia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방산, 운송, 에너지, 건설 및 광산업 분야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군용 차량 및 엔진 유지보수(MRO) 사업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STX엔진은 1977년 독일 Rolls-Royce Solutions 사(전 MTU)와 디젤엔진 창정비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당시 불모지에 가까웠던 국내 방위산업 디젤엔진 분야에 처음 진출하여 국내 전차, 자주포 및 함정용 엔진을 국산화 생산해 왔으며,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산 기술도입 업체에서 기술 수출업체로 거듭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 글로벌 방산 시장 확장 기대, 국위선양에 앞장서는 STX엔진

이번 계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STX엔진의 기술력과 확장성을 인정 받은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STX엔진은 그 동안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K9 자주포 엔진 수출 실적을 쌓으며 검증된 성능과 품질을 바탕으로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방산 수출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는 수출시장에서 요구되는 가혹한 운용 요구 조건과 기술 사양을 충족하는 디젤엔진을 안정적으로 국산화 생산할 뿐만 아니라, 현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방산 시장에서 현지 생산 및 기술이전이 주요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호주 사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STX엔진 이상수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STX엔진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며, “STX엔진은 이제 해외 원 제작사의 단순 기술협력업체를 넘어, 국내 연구개발 전문업체로 탈바꿈하여 도약하고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맞춤형 동력 솔루션을 통해 해외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TX엔진은 호주와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향후 각국의 방산 수요에 맞춘 최적의 동력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집중 할 계획이다.